

취업자 증가폭 석달째 10만명대

2월 10만·3월 11만여명 이어 4월 12만3000명... 취업자수 2686만8000명

고용률·실업률 소폭 개선... 실업자수 116만1000명으로 전년비 6000명 ↓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고용지표는 쉽사리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세 달 연속 10만명 대에 그쳤다.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의 경우 거의 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폭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 증가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월 33만4000명을 기록한 뒤 2월 들어 10만4000명으로 추락했다. 3월은 11만2000명으로 나타났고, 4월에도 10만명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

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2008년9월부터 18개월간 10만명대 이하 혹은 마이너스 증가폭을 기록했다.

최근 인구 증가폭이 축소된 영향도 있으나 이를 감안해도 좋지 않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인구 증가폭이 예전처럼 30만명 가까이 증가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도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한 적인 과거에 그리 많지는 않았기에 좋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빈 과장은 “공공행정이나 금융보험과 같이 양질의 일자리쪽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도소매나 교육서비스 부분에서 감소가 지속됐다”며 “2017년 6월부터 증가세를 이어오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4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8000명 감소했다. 산업 구조 조정의 여파로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 분야가 부진한 가운데 의료정밀기기와 자동차 분야 취업자 증가 수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건설업 취업자 수는 3만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도소매·숙박음식업은 8만1800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0만명 늘어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위권으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1년 전보다 31만9000명이 늘어난 가운데 임시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는 각각 8만3000명, 9만6000명씩 줄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위축됐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고용

률과 실업률은 소폭 개선된 모습이다.

4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0%로 1년전과 같았다.

전체 실업자 수는 11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 감소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넉 달째 1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내렸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7%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4월을 기준으로 2017년(11.2%)과 2016년(10.9%)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업 고용이 개선됐으나 전년의 기저효과와 제조업 고용부진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3월과 유사했다”며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산업별, 업종별 세부 분석을 바탕으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감사한 마음 꽃으로” 16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현대홈쇼핑 본사에서 직원들이 ‘꽃을 잇는 그대에게’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5월 말까지 창사 17주년을 맞아, 플라워서비스스크립트 전문업체 ‘모이’와 함께 ‘꽃을 잇는 그대에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발부터 상의까지... 패션업계, ‘냉감 마케팅’ 예고

시작은 유니클로 ‘에어리즘’ 아이더·레드페이스 등 냉감 제품 잇따라 출시



아이더 워킹화 ‘쿨니트’

여름이 다가오면서 패션업계가 ‘냉감 마케팅’ 전장을 예고하고 있다. ‘냉감’이란 시원한 느낌이 나는 소재를 말하는 것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등산복과 트레이닝복에서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상복뿐만 아니라 바지, 신발 등으로도 넘어와 여름 패션 시장을 달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냉감’은 아웃도어 업계에서 오래 전부터 보편적으로 활용돼 온 기능성 소재다. 이러한 냉감 제품은 2011년과 2012년 국내에 아웃도어 붐이 일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 여름에 냉감 소재가 적용된 아웃도어 제품을 입는 게 시원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아웃도어 업계 관계자는 “2010년 이전부터 속건성이나 통풍이 잘 되는 제품들은 나왔었다”면서 “워낙 (아

웃도어 제품)이 가능성이 좋다 보니 그쪽(기능성 소재)으로 디자인이나 콘셉트를 맞게 기획을 해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패션 시장에 냉감 소재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알린 브랜드는 유니클로다. 2015년 유니클로가 처음 내놓은 ‘에어리즘’은 섬유회사인 도레이와 함께 개발한 극세사 원단이다.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켜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과 열기를 방출해 주는 제품이다. 업계는 유니클로가 국내 매출 1조 원대 브랜드로 성장한 동력으로 냉감 제품인 ‘에어리즘’과 온열 제품인 ‘히트텍’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올해도 이 같은 냉감 소재 마케팅은 계속될 전망이다. /뉴시스

냉감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온 아이더는 올해 신발을 통해 냉감 기술을 선보인다. 이날 출시된 아이스 워킹화 ‘쿨니트’는 모노페쉬 스트레치 니트로 발 전체를 감싸도록 설계해 착화감을 높였다. 무봉제 기법으로 맨발로도 편하게 신을 수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3D 기능성 냉감 소재 아이스티(ICE-T)를 통해 신었을 때 시원함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아이더 측의 설명이다.

르까프가 출시한 2018년형 ‘에어로드라이’ 시리즈는 팔과 수분을 빠르게 흡수해 외부로 배출시키는 점이 특징이다.

레드페이스의 UV 차단 냉감 티셔츠 3종은 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기능성 소재를 적용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내세웠다. 디자인에도 긴 소매를 적용해 자외선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냉감 소재라는 게 이너웨어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이제 일상복으로도 나오는 것처럼 경계가 없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뉴시스

김동연 “추경, 작년 99% 집행 정치일정과 연결 의도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률이 99%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은 정치일정과 연결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작년 추경은 99%를 집행했고 올해 집행실적도 예년보다 높다”며 “정치일정과 관련하여 추후도 연결시킬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느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김 부총리는 “추경 만으로는 안 될 것”이라며 “(장년실업 문제는) 수요, 공급, 구조문제 등 세 가지가 다 같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연구소에서 최저임금이 고용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짧다고 한다”며 “개인적으로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가 있고 수용성 문제도 같이 봐야 한다”며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구조의 문제를, 양극화나 기술이진 운동장이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생각이 있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4월 정보통신 수출액 12억불

과기정통부, 수입액 86.8억불로 잠정 집계 반도체·컴퓨터·주변기기 수출 증가세 ICT 수치 85.6억불로 흑자... 중국 등서 기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액은 12억불, 수입액은 86.8억불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4월 기준 월간 최대 수출액이다. 2016년 12월 이후 17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98.9억불, 36.6%↑)가 메모리반도체(69.9억불, 47.3%↑)와 시스템반도체(22.7억불, 16.8%↑)의 수출 호조에 지속적으로 역대 2위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8.7억불, 23.6%

↑)도 SSD(4.5억불, 12.2%↑)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다. 반면 디스플레이(20.5억불, 13.5%↓)는 LCD 패널 경쟁 심화 및 OLED 수요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나타났다. 휴대폰(10.5억불, 42.2%↓)도 글로벌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 심화 및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확대됐다. 한편, ICT 수치는 85.6억불로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홍콩 포함, 62.4억불), 베트남(12.3억불), 미국(7.4억불), EU(3.8억불)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